

금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전은숙 글라라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이중태 프란치스코, 조은영 베다	봉헌금: \$186
금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교무금: \$100
다음 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2 차헌금: \$ 65
금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합계 : \$ 351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봉헌봉사: 김보미 로사
회 계: 황성필 요한	차주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친교실 정리: 1 구역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3 월 8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 복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자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때 포도 재배인이 주인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나무의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둘레를 파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으로 흙을 파시어 경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고독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늘 어울리다 보면 하느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직접 영양분을 얻으려면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삶의 둘레를 만들어 세상과 구분을 짓는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거름은 냄새나고 다가가기 싫은 것이지만, 나무를 키워 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름입니다.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신앙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둘레를 파시고 거름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맺지 못했던 삶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가] 시작: 119 봉헌: 221 성체: 180 파견: 121



돌 아 오 라, 집 으 로 !

사순 시기가 되면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도 한목소리로 회개를 촉구 하였습니다. 회개란 ‘악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루카 15,11-32 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 모두의 영적 고향입니다. 명절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통 체증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부모님의 품은 푸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느님의 품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제 1 독서가 말해주듯이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하느님의 품을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고생길로 접어들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 끝은 지독한 고생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1 요한 3,20)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한정된 생각의 틀에 하느님을 고정시켜 놓고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제 2 독서)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주려고 사과를 깎는데, 아이는 사과보다는 사과를 깎는 칼이 신기해서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서 하느님께 그릇된 기대를 하면서 때를 쓰기 일쑤입니다.

좁은 생각의 틀을 넘어서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마태 7,11 참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길에 험한 산을 치워주시지는 않지만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 내 앞에 걸림돌을 제거해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진정 든든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품은 참된 고향입니다.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 ‘Come Back Home (돌아오라, 집으로)’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가출 청소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영적으로 가출 청소년과 같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돌아오너라, 집으로!”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1. 2013년 새 사목회구성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사목부회장: 조남석 베드로 구역담당: 오재영 제노

홍보: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이승환 안드레아 회계: 황성필 요한

전례부장: 전은숙 글라라 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심성신 알렉산드라

1 구역장: 윤두수 2 구역장: 한영주 리드비나 3 구역장: 유현영 사도요한

대학원 구역장: 강동현 학부구역장: 한승호 임마누엘

1 구역 성모위원: 강자영 엘리사벳, 한지영 크리스티나 2 구역 성모위원: 미정

3 구역 성모위원: 윤보현 소화대레사

2. 다음주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여러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교무금>

매월 첫 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목위원)

<세인트폴 제대회 봉사자 모집>

매주 금요일 오후 2:30-4:30에 St. Paul 성당 제대회 (sacristans)에서는 세탁한 성작수건과 성작덜개 등을 다림질하고 꽃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제대회 봉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본 제대회 봉사는 학부/대학원 여학생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30분 혹은 1시간 정도만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전은숙 글라라 esjeon95@mac.com)

<기도모임>

성모회 기도 모임에서 사순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아내셨던 십자가의 수난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화와 기쁨과 고요함과 자기 절제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Verona에 있는 St. Andrew 성당입니다. 날씨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오시기전 게시판 확인 부탁드립니다.

<3월 미사전 묵주기도 지향>

3월 기도지향은 새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사시작 20분전에 묵주기도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임(계속)>

독서단은 3월 중에도 계속 모임하고 있습니다.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3월 8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